

2023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3년 6월 21일(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신 성 환 위 원  
박 춘 섭 위 원  
장 용 성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권 민 수	외자운용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조 태 형	경제연구원 부원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28호 -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및 핵심 점검사항, 중점 전달사항, 그리고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높아진 금리 수준, 주택가격 조정,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로 인한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현안 분석에서는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 미분양 누증, 주택 보증기관 관련 잠재리스크를 살펴보는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및 부동산PF 관련 리스크와 함께 금융지원조치 종료에 따른 기업부문의 잠재 신용리스크도 점검하였음. 그리고 참고박스에서는 중단기적 시계에서 가게 및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을 점검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크레디트 스위스(CS) 사태 등에 비추어 인터넷전문은행과 국내 자본성증권의 잠재리스크 등을 살펴보았음. 또한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본격화 등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 보았음.

한편 금번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지난해 말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관련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가게 및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가 현재화되면서 연체율이 당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뱅크런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6월 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높은 금리 수준, 주택가격 조정, 글로벌 은행 위기 등 최근 부각되는 금융안정 이슈들을 균형있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디레버리징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았음을 보여주는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함으

로써 가계신용 누증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여러 위원들은 지난 2022년 3/4분기 이후 줄어들고 있던 가계부채 규모가 금년 4월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점까지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특례보증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신용시장과 은행 총자산 동향부문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최근의 가계대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채권시장에서의 주금공 MBS 등 우량물 발행 전망을 고려할때 신용채권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전세가격 하락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을 높이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가격 하락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과 관련하여 팬데믹 기간 중 금융지원조치가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감소시켜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한 개별기업의 가산금리갭(2020-21년중 가산금리와 그 이전 기간의 장·단기 평균 가산금리간 차이)에는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에 여러 위원들은 SVB와 CS 사태시 주요국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최근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된 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대한 당행의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영향,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한 당행의 구체적인 역할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안) (생략)